



#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매매 최대

7월 주택 매매량 광주 3443건...5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아  
전남 4157건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지난해보다 2배 상승  
광주 전월세 거래는 감소...수도권 주택거래 전년비 120% ↑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지난달 광주·전남 주택 매매량이 7년 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에서는 3443건, 전남에서는 4157건 등 총 7600건의 주택이 매매거래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4289건)에 이어 5년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고, 전남은 2011년 12월(5101건)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됐다.

7월 광주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전달(3162건)보다 8.9% 증가했고 1년 전(2219건)과 비교해서는 55.2% 크게 올랐다.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1만 9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 증가했다. 5년 평균치보다는 5.2% 오른 수치다.

전남 거래량은 전달(3320건)보다 25.2% 증가한 415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27건)보다는 무려 2배 가까이(95.4%) 뛰었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는 총 2만2674건이 거래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44.7% 증가한 수치다.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34.3% 올랐다.

7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건으로, 6월에 이뤄진 거래도 일부 포함된다.

전국 7월 주택 매매량은 14만1419건으로 전달 대비 2.1%, 1년 전 대비 110.0% 늘었다.

1-7월 누계 거래량은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견줘 99.8% 늘었다.

7월과 1-7월 누계 거래량을 각각 정부가 2006년 주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강남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규제의 약발이 먹히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이'가 심해졌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행되기에 7월 주택 거래량만 두고 정책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집값은 결국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주택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만 5725건으로 전달 대비 0.3%, 지난해에 비하면 1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래량은 2만6662건으로 전달에 비해 37.0%, 1년 전보다 117.5% 늘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은 6만5694건으로 전달 대비 4.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9.8% 증가했다.

최근 수도 이전 문제로 뜨거운 세종의 경우 7월 거래량이 1666건으로 전달에 비해 1.2%,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404.8% 증가했다.

부산도 1만2615건으로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38.1% 늘어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

전국 7월 거래량을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 아파트는 10만2628건으로 전달보다 0.1% 늘어난 데 비해 아파트 외 주택은 3만8791건으로 7.5% 증가했다.

7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8만3266건으로, 전달 대비 2.4%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1.8% 증가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환제가 7월31일 시행됐기에 임대차 3법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수도권(12만5622건)은 전달 대비 3.0% 줄었고 전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지방(5만7644건)은 전달보다 1.1%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하면 5.3% 늘었다.

전세(11만2470건)는 전달보다 3.6%, 작년 동월 대비로는 14.6% 각각 증가했고 월세(7만796건)는 전달 대비 10.7% 감소했고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8.6%로 1년 전(40.1%) 대비 1.5%포인트 감소했고 전달(42.2%) 대비 3.6%포인트 줄었다.

광주 전월세 거래량은 3432건으로, 전달(3605건)보다 4.8% 줄고 1년 전(3309건) 보다는 3.7% 증가했다. 같은 달 전남지역에서는 2931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는 전달(3679건)보다 20.3% 감소하고 1년 전(3013건) 보다는 2.7% 감소한 수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전국 롯데마트는 오는 22일부터 햇꽃게를 판매한다. 20일 모델들이 가을 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금어기 끝...“살짝 찬 숫꽃게 맛 볼까”

롯데마트 내일부터 햇꽃게 판매

한달 간의 금어기(6월21일-8월20일)를 마친 가을 꽃게가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롯데마트는 오는 22일부터 9월2일까지 햇꽃게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금어기 이후 잡히는 가을 꽃게는 살아 찬 '숫꽃게'로 유명하다.

광주·전남 9개 점포를 포함한 전국 롯데마트는 서해안 햇꽃게 100g 안팎을 1280원에, 서해안 햇꽃게 3kg 한 상자를

2만970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전북 부안 격포항, 충남 태안 안홍항 등지의 꽃게 선단 10척과 미리 계약해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까지 마련된 물량은 총 100t이며 롯데마트는 10월 말까지 꽃게 할인 행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용호 롯데마트 수산팀장은 "살이 짙은 숫꽃게를 올해 처음으로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리빙랩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강료 무료·교통비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리빙랩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살아있는 연구실을 뜻하는 '리빙랩'에서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사회 혁신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는 리빙랩 활동을 주도적으로 촉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교육은 나주 혁신도시 일대에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총 80시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며 회차별로 소정의 교통비와 증식비가 제공된다. 전문가 활동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설계 카드와 도구 모음 가방도 주어진다.

전남 거주 주민과 전남 활동 프리랜서, 마을활동가, 전남 소재 기관, 기업 종사자, 전남 소재 대학 대학생 등 전남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퍼실리테이션 교육 전문가인 ㈜더조아진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했다.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종합 교육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언택트) 퍼실리테이션 외 ICT 융합이해·블록식 코딩 체험 등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및 리빙랩 분야의 전문 강사 특강도 들을 수 있다.

수료생에게는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공식 인증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별도 심사를 통과한 합격자에게는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자격증도 준다.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및 컨설팅 지원과 ▲리빙랩 참여 기회 ▲운영 전문가 위촉 ▲퍼실리테이터 활동 기회 제공 등 특전도 있다. 참가 신청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교육생이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결과는 오는 9월1일 오후 4시 개별 통지되며 선발 면접은 같은 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4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학연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연말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20일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학연금과 네이버는 나주 본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사학연금 측은 오는 12월부터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학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으로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고지 등을 진행한다.

사학연금은 지난 달 초 디지털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